2002 신년호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대덕복지

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
Dae Duk Social Welfare Foundation

대덕복지

2002 • 신년호

CONTENTS

www.dd99.or.kr

엮·는·순·서

03 복지칼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재단으로

04 대덕칼럼
사랑에 배고픈 아이, 사랑에 배터진 아이

05 신년사
‘ 그러나 우리는 행복합니다... ’

06 대성원 - 보육일지
‘ 세 엄마의 육아일기 ’

08 대성원 - 가정위탁
‘ 따스한 바깥 세상 ’,‘ 재회 ’

10 대성원 - 따뜻한 이웃
‘ 처음과 같이 ’

11 대덕노인복지회관
‘ 되돌아 보는 1년 ’

12 대덕가정봉사원파견센타
‘ 나는할머니들이좋다 ’. '할머니를그리워하며 ’

14 대성어린이집
‘ 희망의새아침을열며...’, 아이들과함께한시간속에서...’

16 대덕복지 이모저모
대성원소식 -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17 대덕복지 이모저모
대성어린이집소식, 사회복지개발연구원소식

18 대덕복지 이모저모
대덕노인복지회관소식

20 따뜻한이웃이있어참으로살만한세상입니다.
후원자

22 몸으로 섬기는 손길
자원봉사자

● 표/지/글
“ 애들아~ 이쁜짓! ”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단짝친구...현민이와 석준이
특히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인기 ‘ 짱 ’입니다.

발행처 사회복지법인대덕재단
발행일 2002. 1. 15. 통권 제 8호
발행 및 편집인 도병권
기획 및 제작 대덕재단 후원사업부

열린마당함께하는이야기

<대덕복지>는좋은이웃과함께만들어가는계간지입니다. 따뜻하고정감어린이야기, 희망을꿈꾸는이들의아름다운사연을기다립니다.
밝은사회를이끌어가는대덕가족의이야기에많은분들의관심과사랑을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지재단으로

전 재 일
사회복지개발연구원장
대구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

새로운 밀레니엄의 첫해가 지나가고 임오(壬午)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 도병권 이사장님, 그리고 재단산하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인간생활의 어려움과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며 양적인 증가 또한 괄목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이 풍부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가 넘치는 복잡하고 구조화되어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복지문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민간복지재단이 감당해 나가야 할 몫이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새해에는대덕재단이 외적 내적인 변화와 발전을통해 지역사회 복지에중추적인역할 을 다 할 수 있는 한해 가 되기를기대해봅니 다.

새해에는 대덕재단이 외적 내적인 변화와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단 산하 모든 분들이 부단한 노력과 자기개발을 통한 주체적 활동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개인과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각자가 능동적으로 일을 찾고, 계획 · 추진하는 자세로 전문성과 창의력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자기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조직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고, 조직의 발전을 통해 우리 자신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길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차게 달리는 말과 같이 미래를 향한 질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보람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배고픈 아이, 사랑에 배터진 아이

김 영 명
대구명인소아과원장

너무 많이 먹으면 배터진다는 말이 있다.
사랑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 터진 아이가 된다.

배가 터졌으니 대변이 밑으로 나오지 못하고 터진 배로 나오게 되고 곁에만 가도 구린내가 나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는 장애인이 되는 법이다.

맞벌이 부부가 낮시간에 아이를 할머니께 맡겨 두었다가 저녁이나 휴일날 아이와 대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랑을 퍼붓는 모습을 보면 이야말로 아이를 다루는 엄마들의 꼴불견이 말이 아니다. 이건 아이의 종인지 신하인지 모를 저자세로 대하여 아이를 온통 폭군으로 키우고 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못하여 소위 '왕따'가 되기 십상인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소아과 의사가 가르쳐 주면 "당신이 우리 아이 성질을 어찌 다 알아요"하고 대드니 참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

영아원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서 아이를 돌보는 복지시설직원(보육사)들을 보노라면 이들의 아이 대하는 태도도 또한 천차만별이다.

사랑에 배고픈 아이에게 거의 친부모처럼 보살펴진 아이들이 많은가 하면 얼굴에 그늘이 가득 차 있고 본능대로만 사는 동물원 짐승들처럼 남의 눈치만 살피는 아이들을 가끔 볼 수가 있다. 이들이 소위 말하는 사랑에 배고픈 아이들이다.

자기를 돌봐주는 선생님이 얼마만큼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느냐 하는 것이 한눈에 바로 나타나 보인다 가끔 자원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사랑이 채워진 아이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짧은 시간에 너무 사랑을 많이 퍼부어 사랑에 배터지게 한 부모와 같은 태도 때문이다.

또한 요즘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아이들이 많이 버려진다는데 소아과 교과서에 의하면 '육체적 구타를 자주 당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삐뚤어진 인격기초 때문에 비행청소년이 되기 쉽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자신의 불만스트레스를 자기 자식에게 화풀이하는 머저리 같은 부모들을 계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절실하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가장 좋은 처방이듯 아이를 버리거나 학대하는 이런 부모에게는 끔찍한 형사적 처벌을 가해야 하는데 현 사회는 모순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노숙자, 실직자가 마치 보훈처 공로자처럼 큰소리 땅땅 쳐도 공권력은 이들에게 완전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에 배고픈 아이와 사랑에 배터진 아이,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고 자란 아이, 이들이 앞으로 20년이 못되어서 이사회에 어떤 존재로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합니다..

대성원장 도 병 권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여 주신 분들과 또한 정성으로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건강과 만복이 여러분들께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온갖 신문과 방송에는 하나같이 올해 각종 선거와 총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말은 서로가 국민들을 위한 다툼이라고 하지만 그 바탕은 그렇지 않아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신뢰감 상실로 인하여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믿음과 인간성 파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본보기로 아르헨티나의 붕괴 위기가 이슈가 되고 있어 여러모로 우리와 자연스럽게 비교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개인의 경제적 부를 위해서는 여야가 없는 블랙커넥션으로 모든 경제자원이 국외로 팔려가 국가는 공동화하여 극소수일부의 부유층과 나머지 전 국민의 빈곤으로 인하여 국가의 미래가 암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대통령을 할 후보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을 할 능력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서서 혼돈을 느낍니다. 아직 우리는 많은 희망이 있는 국가인가 봅니다. 그런데 선거철에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은 투표권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뭐 없을까? 항상 어른들의 타산적인 것에 그냥 묻어나가야 하는가? 미래의 희망이라고들 떠들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나 했던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부모의 빈부와 관계없이 다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왜 어린이는 투표권이 강탈되어야 되는가? 보호자가 어린이 권리를 위한 대리참정권은 가질 수는 없는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선거철이면 더더욱 소외되는 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건 어느 공연장이나 그 어느 전시장에서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는 최고의 창작물을, 최고의 즐거운 음악을, 천상의 보물들을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옹아리, 조잘거림, 그들끼리의 이야기들...
어느 공연장의 음악도 이런 즐거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희망을 담고 있는, 인류 역사상 똑같은 것이 한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창조적인 진정한 예술품이 우리 어린이들이 아닙니까!

이들의 발달과정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예술 그 자체입니다.
백억, 천억이라는 돈을 쉽게 말하는 과거 지향적인 어른들, 어린이는 입장 불가능한 어른들만의 공연장, 미술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의 보물인 어린이들을 위한 그 무엇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은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십시오.

정치 · 경제 · 사회환경, 소음 없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들리는 사랑이 듬뿍한 양지가 참으로 그립습니다.

세 엄마의육아일기

2002년1월1일

반짝반짝 예쁜 눈망울을 가진 우리 방 아이들이 있어 추운 겨울을 아주 따뜻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아직 너무나도 모르는 초보 엄마이지만 사랑만은 누구에게도 뒤쳐지지 않는 답니다. 가끔씩은 아이들의 짜증과 투정에 피곤함을 느끼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그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답니다. 이런 우리 방의 사랑스런 여덟 명의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院왼쪽부터 보육사 김지선 신은희 안재숙 선생님

현지 (12개월)

우리 방 맏딸 현지!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지 않고 혼자 조용히 놀다가 가끔씩 '쿵쿵'거리며 어디엔가 머리를 박고 있다. 그럴 때 "현지야" 하고 야단을 치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다른 곳으로 기어가는 현지... 새침떼기같다. 그렇지만 활짝 웃는 모습이 예쁜 아이다.
이런 현지에게 엄마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유식을 잘먹었으면 하는 것이다.
항상 이유식을 줄 때면 입을 꼭 다물고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
부탁인데 현지야! 이제 이유식 좀 먹자. 그래야 튼튼해지지. 알겠지?

민석이 (10개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항상 벌겋게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석!
열심히 약을 발라주고는 있지만 조금 나아지나 싶더니 다시 벌겋게 상기되어 버리곤 한다.
우리 민석이는 동작이 느려서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제자리에서 꿈적도 하지 않고 엄마가 꼭 데리러 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혹 왕자님이 아닐까?!
혼자서 잘 놀다가도 가끔씩은 짜증을 내지만 이름만 불러주어도 금방 웃는 단순한 민석이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

수영이 (11개월)

어릴 땐 너무 약해서 언제 크려나 걱정이더니 요즘은 많이 토실토실해진 수영이

이유식을 얼마나 잘 먹는지 자기 것을 다 먹고도 모자라는지 친구들이 먹을 때 한 숟가락씩 더 얻어먹곤 한다.

우리 수영이는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제일 먼저 기어와서는 꼭 붙잡고 일어서려고 한다. 그럴 때 손 힘이 얼마나 좋은지 가끔씩 엄마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좀 더 애기일 때 야윈 수영이를 생각하면 그 상처마저도 기분이 좋다.

수영아! 앞으로도많이먹고무럭무럭커주길바란다.

미선이 (12개월)

낯가림할 시기라 그런지 낯선 사람만 오면 울음부터 터트리는 우리 방 이쁜이 미선이.

이젠 낯가림을 그만할 때도 되었건만 엄마를 넘 좋아해서인가?

미선이는 엄마가 야단을 치려고 표정을 좀 무섭게 굳히면 엄마따라 같이 얼굴표정이 굳어진다. 그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 웃어버리면 따라서 방긋이 웃어버리는 미선이, 이럴 때면 여우같은 데가 있는 것 같다.

혼자서 한발씩 떼고 걷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차츰 걷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미선이 쫌만 있으면 뛰는 모습도 보겠네

인해 (7개월)

우리 방의 막내아들 인해

개월 수에 비해 몸이 많이 약한 편인데 몸에 비해서는 머리가 커서 이제 겨우 목을 가눈다.

그래도 요즘은 움직임이 많이 늘어 뒤집으려고 노력도 하고 머리를 중심으로 몸을 돌리기도 한다. 몸이 약하지만 이유식을 잘먹어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우리 막내 인해야! 앞으로도 마니마니 먹고 빨리 커서 기고서는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줘

혜정이 (8개월)

모두들 자는 낮잠 시간에 혼자 일어나 열심히 옹알이를 잘하는 혜정이 다른 개월 수의 아이들에 비해 덩치는 크지만 발달이 느려 아직 기지도 앉지도 못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다. 신생아 때부터 콧물이 많아 병원에도 자주 가고 약도 많이 먹어서 걱정이다.

콧물을 너무 많이 닦아서 코밑이 헐어 짜증을 내며 우는 혜정이가 안쓰럽다.

예전보다 콧물이 많이 덜해진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된다.

이제는 그만 콧물 뚝! 콧물아, 혜정이 그만 괴롭히고 그냥 가주면 안되겠니? ^.^

정하 (8개월)

정하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동그란 얼굴을 가진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다.

예쁘장하게 생겨서 그런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들 정하가 여자애인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아주 씩씩한 장군이다.

정하는 방긋이 웃을 때 입이 얼굴의 반(?)은 차지해서 두꺼비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활짝 웃을 때 드러나는 아랫니 두 개도 정하의 매력을 한껏 더해준다.

아직 바로 앉지 못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은 아주 섹시하기까지 하다.

이제 조금씩 기기 시작한 정하! 엄마에게 투정도 부리지 않고 잘 노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

병헌이 (10개월)

헌이는 기어가는 모습이 아주 특이하다.

두 팔과 두 다리를 쫘악 편 상태에서 엉덩이를 치켜들고 기어가는 모습은 저절로 웃음을 자아낸다. 이런 불안한 자세로 별탈없이 기는 걸 보면 신기하다.

덩치가 아주 큰 헌이는 우리 방에서 무게가 젤 많이 나가서 가끔 엄마의 허리를 휘청거리게 한다. 이제 막 침대를 잡고 서기 시작한 요즘은 서서 몸통 흔들고 놀기를 좋아한다. 가끔 혼자 앉질 못해 울어서 탈이지만...

병헌아! 항상 지금처럼 밝게 웃는 너의 모습 변치 않길 바란다.

따스한바깥세상..

송금선
사회복지사 입양상담원

"아이고! 이 녀석들또나왔어!"

오늘도 민수를 앞세운 몇 명의 아이들이 잠깐 열린 문을 놓치지 않고 나와서 사무실과 복도를 다닙니다. 자기들 생각에도 잘못을 했다고 느끼는지 구석을 찾아 숨지만 이내 엄마에게 들켜 혼나고맙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들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조금 속상합니다.

하나하나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며 말문이 트일 시기, 서툴지만 아장아장 걸음마도 배워서 거리에 나와 뽐낼 시기인데 시설 안에만 있으려니 많이 답답할 우리아이들을생각하니말입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시설을 나와 사회와 접촉하는 경우는 봄 · 가을 나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행사 참여 이외에는 극히 드뭅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보육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대성원 마당에도 자주 나가 거닐지만 우리 아이들의 답답함을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보통 가정의 아이보다 발육이 많이 지연되어 4살이 되어 퇴소하기까지도 말문을잘 트지 못하고 우물우물대는 아이도 있어 엄마들 마음을더안타깝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성원 밖의 따뜻한 세상을 느끼게할수있을까요?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왕성한 자원봉사자의활동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도진정한가정위탁의 실천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닌가 합니다.

하루나 며칠 많게는 한 달 넘게 위탁을 다녀와서 아는 단어수도 많이 늘어 어느 정도 어눌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의젓해지고 밝은 모습을 보면 참으로 뿌듯합니다. 아주짧은 기간이라도 가정위탁을 다녀온 뒤알게 된신기하고 새로운것들에 대한아이들의 벅찬마음이그대로느껴집니다.

하지만아직 어려서적응에 무리가있는 아이가가정위탁을 다녀오면 대성원 들어오는 길에서부터 계속 울더니만 밥도 먹지 않고 보채서 아이를 달래는데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떼고 밥을 먹기 시작한 아이나 가정위탁을 다녀와서 시설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는 조금 시기가 지나 아이가 안정이 되면 가정위탁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며 더 많은 것들을 빨리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잘알지만 아이들의적응을 위해어느 정도의시간이 지나가정위탁에 대해잘 받아들일때까지 잠시연기해야합니다.

혹시나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해서 가정위탁을 망설이거나 걱정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아이를사랑하는따뜻한마음만실으시면됩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아이들과 더 많이 친해지고 난 뒤 가정위탁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대성원에서가정위탁을하려면기본적으로주거환경이나생활방식등가정환경이아동양육에적합해야 하고, 대성원 자원봉사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정에 아이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야합니다.

대성원 자원봉사활동 기간동안 아이들 및 직원들과 친분도 쌓고 대성원에서의 아이 양육 방법을 참고하여 그 틀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가정위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 양육 경험이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파악할수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주는 방법에서 외모나 성격이 좋은 한 아이에게만 너무 편중되어서는 안됩니다. 보통 외모나 성격이 좋은 아이는 여러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가정위탁을 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아이들과도 잘 지내지 못하고 구석에 홀로앉아 놀고있거나 몸이다소 불편한아이들은 가정위탁 수가 다른아이와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지속적인자원봉사활동기간동안혼자어울리지 못하고 놀고 있는 아이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주어가정위탁을실천했으면합니다.

우리아이들이 대성원밖의 사회와가정을 느껴엄마를 한 번 더 부르고 단어를 하나 더 깨우치고 표정이 더 밝아지고 이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기다립니다.

다양한보육프로그램의활성화와왕성한자원봉사자의활동도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정한 가정위탁의실천이이를해결할수 있는열쇠가아닌가합니다.

재 회 (再會)

내 생각엔 특별한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닌 일이기에 더구나나를모르는사람들에게이렇게알려지게되는 것이 우리 윤환이에게 어쩐지 미안한 생각이 들어 몇 번이나 망설여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윤환이와 같은 아이들에게세상의관심과사랑이조금이라도더보태질 수 있다면 '부끄러운 것 쯤이야'하는 생각에 용기를 낸다.

2001년1월 22일이사하는날이다.

딸 아이는 이사가 끝난 다음에 오겠다고 하면서 아침 일찍 어디론가 가버렸다. 철이 들면서부터 「내집」에서 살았고 이사는 「좀더 넓은 집」으로 하는 줄만 알고 자란 아이라서 지금 심정이 오죽하겠나 싶어 차라리 그게좋을 것같았다.

남편이 잘못 서준 시동생의 사업보증과 20여년간 직장생활 끝에 벌인 사업이 IMF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불어닥친 칼바람처럼 혹독한 시련의한단면이었다.

이삿짐 정리가 대충 끝난 저녁 무렵 딸아이는 오른손에는 기저귀 한 통을 왼손에는아이 옷 뭉치를 그리고 가슴에는조그만 아이 하나를 안고 집안으로들어섰다.

"오늘 같은 날은 엄마 아빠가 꾸중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변명 아닌 변명과 함께 윤환이와 나 아니 우리가족과의인연은이렇게시작되었다.

딸 아이가 집 가까이에 있는 「대성원」에 봉사활동을 다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건 상상밖의일이었다.

처음며칠동안은딸아이곁에만있으면서우리식구 아무에게도가지않고한밤중에자다가한번울기시작하면1시간이상을막무가내로울어대는고집불통이었다. 딸아이에게꼭안기어다른사람에게눈길한번주지않고표정없는시선으로땅바닥만보던모습이얼마나 애처롭게 보였는지 모른다. 일주일을 허락받고 가정위탁한 윤환이는 딸아이때문에3일을더 데리고있다가 이제 식구들을 보고 웃기도 하고, 딸아이보고 '엄마'라고부르는것을'누나'라고가르치고나를보고'엄마'라고 부르게 되고 남편보고는 '아빠' 그리고 아들아이에게는 '형'이라고 구분되게 부르는 걸 겨우 알게 될 무렵에윤환이는대성원으로떠났다.

윤환이를 보내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보고 싶어하는 딸아이는거의매일대성원에갔다와서는'하루종일창가에 서서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대요'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곤했다.

그로부터며칠후저녁7시쯤에남편으로부터전화가 왔다. 지금대성원인데윤환이를집으로데려가겠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윤환이를 키우면 안되느냐고 졸라되던 딸아이의 맑고 순수한 그마음이 대견하기도 하고 '엄마'라고 부르던 윤환이가 맘에 밟혀 그렇게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 당시 너무나 힘든 생활과 정이 더들면 그 담에 더욱 힘들 것 같은 생각에 그냥 잊어버리자고 했던 생각이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퇴근길에 윤환이가 보고 싶어서 대성원에 들렀더니 팔베게하고 웅쿠리고자는모습을보고너무나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잠든 윤환이를 깨우면서 '윤환아 아빠다. 집에가자!!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 다시 놓지 않으려는듯이 너무나 힘있게 목을껴안더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의 젖은 목소리에 나는 그만 윤환이를 꼭 껴안고 '윤환아 엄마다!! 엄마하고같이살자'고하면서울어버렸다.

엄마 최윤주(47) 아들 최윤환(4) 아빠 이종걸(51)
2001년 1월22일부터 대성원가정위탁프로그램에참여하여 현재까지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계신분들입니다.

이제슬픈얼굴은잊어버리고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비록 물질적으로는풍요롭게해주지 못하지만 그만큼빈자리는사랑으로채워줄께.

너를형의이름을따라재회(在槐) 라고이름지어주신 아빠, 우리와 다시 만났다는 재회(再會)라는 뜻도 되고 회(槐)는 정승을 가르키는 말이라고, 너도 커서 정승쯤 되라는아빠가계시고엄마아빠보다너를더사랑하는 누나와 형이 있잖니..너가 울때면 아무리 단잠에 빠져 있더라도앞다투어일어나달래주는누나와형이있잖아. 형이너공부시켜준다고했으니까우리기대해보자. 이젠잘못한너에게벌을주기도하고종아리때려도가슴아프지않는 엄마란다. 기른정과낳은정의무게가 똑같다는 걸 가르쳐 준 너이기에 사랑해 윤환아! 아니재회야!!

주위에계신분들특히성바오로성당의신부님과수녀님그리고교우여러분들의따뜻한격려와도움에대하여머리숙여감사드리며또한오늘도철없는아이들과씨름하고계시는대성원원장님과직원들에게존경과사랑의말을드리고자합니다.

처음과같이..

대성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글로 써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002년을 맞이하면서 나 자신도 돌이켜 볼겸 차근차근 그 마음들을 떠올려 봅니다.

늘 친구들과 모이면 우리에게는 미용기술이 있으니 이걸로 한번 봉사활동을 해보자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말만 해놓고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시는 전보화씨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그녀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겪은 일들과 한 남자 어린이를 입양할 생각이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우리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들도 동의를 했고, 한달에 한번 화요일로 정해 미용봉사활동을 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세월의 빠름과 스쳐 지나간 어린 친구들이 뿌듯하면서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머리를 깎지 않으려고 눈물 범벅이 되어 떼쓰는 아이들을 의자에 앉혀 깎으려해도 깎을 수가 없어 결국엔 무릎사이에 놓고 온몸이 머리카락 범벅이 되었던 날들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사탕 한 알에 눈물을 머금고 참는 아이, 머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입으로만 우는 아이, 온몸 마구 흔들며 울어대던 아이, 점잖게 잘 깎는 아이, 애교를 많이 떨던 아이...

한 달에 한번 가서 만나는 아이들이 다음에 갈 때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 버리곤 해서 섭섭하기도 했지만, 어딜 가든지 잘 커주었음하고 바랬습니다.

아이들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엄마라는 자리에 있기에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 속에 서러움을 느낄 수 있어 어떤 날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른들의 무책임함이 아이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아이들을 키우지 못할 정도의 가난함과 그 아이들의 부모가 얼마나 야속한지...

아주 갓난 아이들은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채 잘 적응해 나가겠지만, 3 - 4살까지 바깥생활에...햇빛과 바람에...그리고 사람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배고픔보다 정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봉사활동가기 하루 전날에 들어왔다는 6살 짜리 한 남자아이는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울먹이며 엄마가 너무 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픈 날이었습니다. 맑고 활발한 아이를 만날 때면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커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한지 1년쯤 되었을 때, 사무실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와줌으로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처음에 잘 할 수 있다고 시작해서 한 두번하고는 많이들 포기하는데 꾸준히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한 아이도 힘든데 그 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몸으로 부딪히며 아이들을 보살피는 보육원 엄마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수십개의 젖병을 익숙하게 다루는 처녀엄마들의 씩씩함에 감탄도 했습니다. 끝난 후, 커피 한 잔의 고마움을 느끼며...또 한해의 첫 문을 열면서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나 역시 항상 그 자리에서...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기를...

<글 · 정영화자원봉사자>

되돌아보는 1년...

설영숙
대덕노인복지회관장

한해의 끝에서는 누구나 지난 시간에 대한 회상과 안도로 한번쯤 큰 숨을 쉬어보겠지만, 우리복지관 가족들에게 지난 2001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였었다.

2000년 12월 개관 후 다음해 1월 사회교육사업을 시작으로 매일 매일 새로운 역사를 한 장면씩 만들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었다.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리가 아파 걸음을 옮기기도 너무 힘이 드는데 며느님이 택시비까지 챙겨주며 권유하는 바람에 오기는 왔다시던 할머니 한 분은 처음엔 말수가 적으시더니 직원들과 가까워지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해 오실적마다 "아마 내가 홧병이지 싶다"며 지난 살아오신 세월을 이야기하셨다. 실제로 그분의 신체적인 불편함은 심리적인 자포자기에서 온 것 같았다. 왜냐하면 목요일마다 수지침을 맞으시고 노래교실, 단전호흡을 시작으로 나중엔 당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으시다며 에어로빅까지 참여하시더니 일년이 지난 지금은 집에서 복지관까지 3코스나 되는 거리를 걸어다니시다니 말이다. 표정도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저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내리기도 힘들어 못 오시겠다던 그 할머니가 맞으신가하고 생각될 때가 있다.

컴퓨터 켜는 법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시작한 어르신들께서 배움의 재미를 솔솔하게 느껴가시고 당신들끼리 이메일까지 주고 받으시며 신나하시는 모습에서, 그리고 지난 여름 캠프때 비가 와서 못할 줄 알았던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이런 경험은 평생 처음이라며 기뻐하시던 모습에서, 자연을 잘 보호해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앞산보호 자원봉사에 나와 주시던 모습에서, 이젠 당신들끼리 친숙해지셔서 이것저것 재미나는 일들도 만드시고, 사는 것이 즐거우시다며 활기차게 복지관 문을 들어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이제 막 시작한 살림에 힘이 들때도 많지만 대덕노인복지회관이란 공간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며 새삼 보람을 느끼게 된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시작되어 소외되고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을 할 수 있어 이제 대덕노인복지회관은 끝없는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세대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부터 힘들고 소외되어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사업까지 그야말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사는 보람과 재미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많은 분들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였다. 현재의 어려움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격려해 주시고 세심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도병권이사장님, 그리고 여름캠프까지 함께 동반하셔서 노인들과 어울려 주시고 항상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최영숙 후원운영위원회 회장님과 후원운영위원님들, 그리고 복지관 증축 문제를 앞질러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각반 회장님들과 캠프, 개관기념행사 등 모든 행사에 자진하여 도움을 주시던 회원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님들과 후원자님들... 일일이 다 쓰자면 지면이 모자랄 정도이다.

모든 분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되고 기쁜 한해가 되기실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희도 어르신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의 욕구에 응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는할머니들이좋다.

신 정 한
대덕가정봉사원파견센타과장

우리는 '무의탁노인' 혹은 '독거노인'이란 말을 들으면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소위 외로운 노인들을 떠올리게된다.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생각은 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른다는 핑계로 결국 무기력하게 포기하게 된다.

나도 그랬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독거노인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게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보니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할머니들의 집을 가정봉사원들과 다니면서 일했을 때 참 많이 놀랬었다. 난 항상 나의 환경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로선 하루도 지내지 못했을 집에서 매일 살아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나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게다가 대부분 할머니들은 한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로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누구하나 말벗되어 주는 이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로 안타깝다.

그런 할머니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송하여 말벗도 되어주고 여러 가지 집안 일도 도와주는 등 가정봉사원과 할머니 사이에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서로 모녀처럼 잘 지내는 모습을 볼때면 흐뭇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 일에 보람도 느끼게 된다.

100여명의 할머니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진심으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낯선 남자의 방문에 다소 거부감을 가지고 경계의 눈빛으로 대하는 분들도 있었다. 어느 한 할머니의 얘기를 하면, 그분은 날 도둑으로 몰기도 하고 사기꾼으로 몰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한때 이 일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잘 해드려야지, 시간이 흐르면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하며 스스로 나 자신을 위로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로 그들을 대한다면 언젠가는 신뢰라는 열매가 맺히고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의 그런 생각과 행동 때문이었는지 시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그 할머니가 나를 더 반기고 이제는 서로 정이 들어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는 사이가 되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한지 약 5년여 동안 돌아가신 할머니도 계시고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입소하신 할머니도 계신다. 무엇이 그 할머니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를 늘 생각해서 한 일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늘 후회가 남는다. 좀더 잘 했어야 하는데 하는...

나는 할머니들이 좋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과 관심을 주는 만큼 좋아하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나의 직업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곤 한다. '외롭고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시니 참 좋은 일 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난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분들이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한가지는 지금의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고초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늙고 병들어 돌봐줄 사람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존경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된다. 또 한사람 한사람의 자원봉사활동과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없이는 그 어떠한 노력도 소외된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봉사의 진정한 가치와 필요성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 보면서 차차 온 몸으로 느끼는 거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나는 작은 힘이나마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 주고자 노력하며 살 것이다.

할머니를그리워하며...

정원잠
가정봉사원

직장을 다니다 IMF로 실직을 하게된 그해 겨울은 물질적인 욕심으로 참으로 추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봄눈 녹이듯 녹여주신 진○○ 할머니를 가정봉사원파견센타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만나는 날, 약간 가파른 언덕길을 신정한 선생님과 걷고 있었습니다. 7번 버스종점 고산골, 거기에서도 앞산쪽으로 훨씬 더 들어가는 곳, 제대로 된 차로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드문드문 있는 집들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계단식밭 한가운데에 양철과 판자로 엉성하게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할머니!'하고 부르며 방문을 열었으나 할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텃밭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새까맣고 키도 자그마하며 몸도 깡말라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욕탕에 모시고 갔을 때 몸무게가 34Kg이었습니다.)신선생님은 '할머니, 이 분이 이제 할머니댁에 할머니를 도우러 오겁니다.'라고 빙그레 웃으시며 바라보시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댁에 일주일에 3번씩, 2년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은 다음주 월요일에 기관지천식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병은 3 4일만 입원하면 낫는다고 구슬려 중앙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내에 이곳저곳을 다니며 검사한 결과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폐결핵 4기였습니다.

세차장에 일을 다니며 힘들게 사는 딸에게 연락하여 대구의료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도 이 따뜻한 봄날에 텃밭을 못 가꾸시는 것을 더 속상해 하셨습니다. 할머니 머리를 감겨드리고 옷을 갈아 입혀 드리고 약 드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식사수발도 하고 따뜻한 말동무도 되어 드렸습니다. 두달 후 몸도 덜 나은 할머니를 119 차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와도 한심 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이 할머니는 지금까지 촛불로 밤을 지내셨습니다. 이웃에 말씀을 잘 드려서 전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수도도 설치해 드리고 싶었지만 구청 직원은 무허가 집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옆집에서 긴 호수를 사용하여 물을 큰 통에 몇 통씩 받아 놓고 한달씩 아껴 썼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센타에서는 반찬을 갖다 드렸고 중고 냉장고와 TV를 후원해 드렸습니다. 2년 가까이 되어서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눈이 점점 안보이셨고 노화로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걸음을 못 걷게 되어 휠체어를 구해서야 외출이 가능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마음이 너무나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호박과 옥수수를 텃밭에서 농사지으시면 집에 들르시는 모든 분들께 한 개라도 더 주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남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해 텃밭을 가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세상의 삭막함을 자그마한 할머니의 체구에서 뿜어 나오는 무소유의 소유가 얼마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것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할머니께 봉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욕심 없이 살아가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삶의 이치를 배우러 가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5일전에 중앙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 고통 속에서도 대소변을 받아내는 저에게 고맙다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새벽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들고 신 선생님과 보훈병원 영안실로 갔습니다. 그 곳에서 사진 속 할머니와 이별을 하였습니다. 옥수수 밭을 배경으로 빙긋이 웃고 계시는 할머니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지만 눈물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그곳에는 가난과 질병이 없는 곳, 자식으로 인해 애태우지 않을 곳, 그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저는 할머니께 배운 사랑으로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수없이 기원하였습니다. 지금은 집마저 헐리고 텃밭만 남아있지만 할머니는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희망의새아침을열며...

허 정 미
대성어린이집원장

희망찬 2002년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월은 모든 면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한해의 계획을 세우는 달이며,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얼굴과의 만남, 새로운 정책,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달입니다.

희망찬 새해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해의 계획이 나중에 결과물이 없더라도 한해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면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1월이면서 겨울인 현재 혹한의 겨울 하늘을 가르며 힘찬 날개짓을 하는 겨울새가 생각납니다. 겨울 강가에 있는 겨울새, 옅은 푸른색 하늘에 거대한 겨울새가 하늘을 뒤덮는다는 상상만으로도 자연의 거대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도 저 새가 되어 저 무리 속에서 청명한 공기를 마음껏 헤집으며 날아봤으면..."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 비록 모든 것이 힘들고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되어도 혹한의 겨울하늘을 힘차게 나르고 있는 겨울새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겨울새처럼 청명한 공기를 마음껏 헤집고 날아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든 그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라 해도 자신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만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2년에는 새해의 첫 태양처럼 힘차고 따뜻한 한해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우리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모두 열심히 사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한 날들이 가득한 2002년이 되길 바라며...

아이들과함께한 시간속에서...

풋내기 교사로 대성어린이집에 발을 내딛은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영화처럼 스쳐지나가는 여러 일들을 떠올리며 지난 2년의 시간 속에서 느낀 생각을 이 짧은 글속에 담아 보려한다.

내가 어린이집에서 만나 본 아이들은 어릴 적 내가 아는 친구들 같았고 또 내 모습과도 같았다.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보면 두 세배는 그 아이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이없이 또는 자지러지게 웃을 일도 많았고 누구도 못 말리는 말썽쟁이들에겐 동화 속에나 나오는 못된 마귀 할멈처럼 아이들을 위협한 적도 있었다. 단지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로 똑똑하지 못한 선생님을 세상에서 제일 박식한 사람으로 믿어 버리는... 선생님 말이라면 뭐든지 옳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눈망울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작아지곤 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눈망울에 힘입어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처음 반을 맡았던 나는 부푼 희망으로 공주같은 리본을 달고 예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마냥 예쁜 선생님을 꿈꾸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었다.
'하 하 하' 그러나 현실의 나는 아이들의 괴롭힘에 지친 선생님이 되어 있었고, 동화를 열심히 듣는 예쁘게만 앉아 있는 마네킹같은 아이들도 없었다. 아니 몇몇에 불과하다란 걸 알아버렸다.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커주길 바라는 것은 나의 욕심일 뿐 먼저 내 스스로가 바뀌어야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있는 눈망울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더불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마냥 잘해주는 천사같은 선생님보다 옳고 그름을 알게 하며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한바가지 두바가지 덤으로 세 · 네바가지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같은, 친구같은 선생님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차라리 공주같은 선생님보다 튼튼한 몸과 능동적인 자세를 가진 시녀가 되기로 맘을 먹었다. 그런 자세로 생활을 한 후 어린이집에 있으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애가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전엔 다른 곳에서 적응을 잘 못했는데 여기 온 후엔 울지도 않고 잘 다녀줘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런 말들이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랑이다.
우리 원의 선생님들은 개나리반 두분, 진달래반, 민들래반, 24시간 선생님 이렇게 다섯분이 계신다. 우리 원의 선생님들은 어디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두 각자의 일들에 충실하시고 아이들에겐 엄마같은 푸근함으로 항상 마음을 열어주신다.
특히나 민들레반 남선생님은 아빠같은 맘으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니 마음을 닫을 아이도 없는 것이다
늘 한가족 같은 우리 원은 아이들이 지칠 날도 선생님이 지칠 날도 없는 힘있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대성어린이집의 한 식구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며 2002년 한해는 더욱더 분발하는 선생님이 되길 다짐해 본다.
사랑받고 싶은 어린이들~~~다 모여라!~~~♡

< 글 · 배윤주진달래반선생남

대 성 원

참 오랜만의 나들이였다.

지난 11월 3일 우리 대성원 친구들은 늦은 가을소풍을 갔다.

볼 것도 많고, 뛰놀 곳도 많고, 탈 것도 있는 어린이 회관으로...지난 봄 이후의 첫 나들이라 그런지 아이들은 물론 엄마들, 자원봉사자들할 것 없이 모두 들뜬 마음으로 출발했다.

싸늘하고 궂은 날씨에, 결국엔 가랑비까지 잠시 내리긴 했지만, 모두에게 너무 즐거운 하루였다.

정문에서 어린이회관 소개를 하는 귀여운 로봇을 보고 " 오~! 오~! "하는 소리를 내며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워하던 아이들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귀엽다. 또, 놀이기구를 탔던 시간도 아이들에겐 잊혀질 수 없는, 흥분되고 신나는 시간이었다. 100미터가 조금 더 되어 보이는 레일 위를 기어가는(?) 작은 기차를 타고 무서워 소리치고 눈물까지 흘리던 아이들의 모습도 잊을 수가 없다. 그래도 쌀쌀한 날씨에 아이들을 가장 집중하게 했던 시간은 점심 시간이었다. 조각낸 김밥을 입에 넣어주면 대충 우물우물하다가 삼켜버리고,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입에 넣었다 뱉으며 " 앗, 떠(뜨거)! "하는 모습...아이들이 김밥을 그렇게 잘 먹는다는 사실을 난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그 모든 좋았던 기억들을 뒤로하고, 아이들은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와야 했다.

대성원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불 위에 쓰러져 자는 아이들을 보며 가끔은, 아니 가능한 자주 그날처럼 피곤할 만큼 행복한 날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

< 글 · 보육사 박소현>

院 일일음식바자회

한달여간의 짧은 준비기간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성공리에 ' 일일음식바자회 '를 마쳤답니다. 그건 모두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 주었던 영진전문대RCY학우들과 일을 끝내고 지친 몸으로 일손을 보탰던 선생님들 그리고 대성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후원자님들의 도움 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날 저희가 서툴러서 잘 대접 못한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구요...*^^*다음에 오시면 꼭 융숭히 대접해 드릴께요...꾸벅꾸벅^^

院 미8군 캠프 방문

혁수를 그동안 가정위탁 하셨던 Mrs Hill 아줌마가 혁수는 집으로 돌아가서 대성원에 없지만 남은 혁수 친구들을 위해 미8군으로 직접 아이들을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 주셨답니다. 푸짐한 음식과 판토마임, 율동, 노래...그리고 푸짐한 선물까지 너무 너무 많이 준비를 해 주셨더군요...우리 아이들이 모두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Mrs Hill 아줌마의 따뜻한 마음은 느낄 수 있었을 꺼예요...^^ Mrs Hill아줌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대성원에 자주 놀러 오세요!!

院 크리스마스

모두들 기디리고 기다렸던 크리스마스가 왔답니다. 정원의 앙상한 나뭇가지에 밤이면 크리스마스 전구들이 아롱아롱...반짝이고...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신나게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가끔은 빨간 옷 입은 아저씨들이 선물도 나눠주고...또 가끔은 큰 카메라를 들고 와서 눈부시게 불빛도 비추며 여기 저기 돌아다니시는 아저씨들도 나타나는...참 신기하고 볼거리도 많은 재미나는 크리스마스...정말 좋아요...^^;

院직원교육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상담소 주최로 11월 20일(화)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영호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사회복지정의 나눔을 위한 세미나가 11월 23일(금)~24일(토) 경상남도청 도민홀과 부곡에서 있었습니다. 대성원에서는 허진희, 이승현 선생님이 다녀오셨습니다.

대성 어린이집 소식

陀 야호~~흰눈 사이로...

"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 추운겨울이지만 집안에 웅크리고만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대성친구들과 눈썰매 타러가요...
내려갈때 신나지만...올라올때 많이 힘들었지만...^^; 10번도 20번도 더 탈수 있어요~~

陀 산타할아버지 오신날!!

착하고 예쁜 대성어린이집 친구들을 보러 산타 할아버지께서 루돌프를 타고 오셨대요.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도 이따만큼 받고, 산타 할아버지랑 사진도 찍었어요.
착한 친구와 나쁜 친구를 어떻게 잘 아시는지...내년엔 더욱 착한 어린이가 될래요!! 근데 루돌프 어디있지? ^^;

陀 Happy birthday to you!!

뻥!뻥! 터지는 폭죽 소리에 모두 깜짝 놀랐지만, 오늘은 기분좋은 내 생일날이랍니다.
맛있는 음식들과 친구들의 축하노래로 오늘 하루 내 마음은 왕자님, 공주님보다 더 행복했어요...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 합니다~ "

鈺 2002년 어린이집 원아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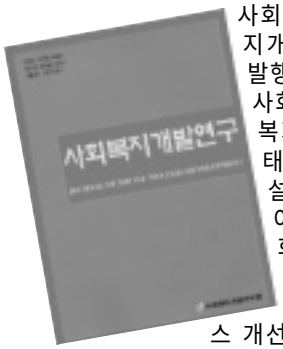
* 지원자격 : 24개월 ~ 취학전 아동
* 보육시간 : 정규반 오전 9시 오후 3시30분
  종일반 오전 8시30분 오후 6시
* 특 례 : · 수급권자 자녀 보육료 전액 면제
  · 저소득 자녀 보육료 50% 감면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우선 입학
* 접 수 : 수시접수
* 문 의 : 053)472~3772

鈺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 목 적 : 직장인, 맞벌이 부부와 단기 출장인을 위해 아동보호 서비스 실시
* 대상아동 : 24개월 ~ 취학전 아동
* 보육시간 : 24시간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소식

" 사회복지개발연구 " 제 7권 제 4호 발행



사회복지전문 학술지 " 사회복지개발연구 " 제7권 제4호를 발행하였다. 이번 호에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관련 조례 정비방안(김태진 · 김덕진),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 생활 및 서비스 이용실태(박태룡),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박태영),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전재일) 등 사회복지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 사회복지개발연구 " 정기구독안내

본 연구원에서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 " 사회복지개발연구 "는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연구활동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와 국민의 다양한 욕구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1995년 6월 20일 창간되었습니다. 이후 한번의 결호도 없이 2001년 12월 현재 7권4호(통권 29호)에 이르고 있으며, 총 133편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한술지를 정기구독 하신다면 사회복지관련 다양한 연구주제를 접할 뿐만 아니라 학계 및 실천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겁입니다.

- 연간 구독료 : 개인 - 3만원, 기관단체 - 5만원
- 계좌번호 : 대구은행010 - 05 - 445687 - 001
  우체국 702951 - 02 - 036846
  (예금주 : 전재일)
- 정기구독 안내 전화 053)474 4077

" 가족치료센터 " 이용안내

사회복지개발연구원 부설 가족치료센터는 가족구성원들이 그들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가족들 서로가 존중하면서 새로운 행동양식을 시도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1)운영시간 : 매주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 대상
  ①정신건강장애, 일탈및그우려가있는아동및청소년
  ②정신건강에어려움을가진성인
  ③정신건강도모를원하는지역주민
  ④사회복지실천전문가
3) 문의 : 053)474~4077

대덕노인복지회관

院 대덕노인복지회관 1주년 개관기념

지난 12월 18일 ‘ 1주년 개관기념행사 ’를 맞이하여 대덕노인복지회관이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는 뜻 깊은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사회복지관계자 및 지역주민등 500여분들이 참석하여 1부 개회식, 2부는 오찬을 가졌으며, 3부 순서로는 어르신들께서 그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는 흥겨운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발표 도중 간혹 실수 아닌 실수를 해서 청중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 넣어 발표장은 더욱더 열기가 뜨거웠답니다. 또한 향뜰어린이집 아동들의 재롱잔치에서는 어린이들의 깜찍한 애교에 모두들 동심의 세계로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특히 복지회관 이용회원들이 따뜻한 정성을 모아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성금을 전달해 주셔서 참석한 많은 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院 독거노인 겨울나기 모금행사

12월 22일 2시 부터 중앙로 엑슨밀라노 앞에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와 공동모금회 그리고 벼룩시장이 함께한 독거노인겨울나기 모금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의 여러 시설에서 직원과 봉사원 60여명이 시내 일대에서 가두모금을 하여 전액 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습니다. 바람도 쌩쌩~부는 주말 오후에 일부러 시간내서 손호호~불며 어르신들을 위해 힘껏 외쳐주시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전하나에도 사랑을 실어 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院 맛있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11월 27일 겨울나기의 필수식품 김치를 새마을운동중앙회남구지회에서 후원해주셔서100분의 어르신들께 골고루 나누어 드렸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추위에도 아랑곳 않으시고 3일간이나 남구청 앞마당에서 새마을부녀회원분들이 몸을 사리지 않으시고 열심히 김치를 담그셨답니다. 그 정성과 사랑 때문에 김치가 무지무지 맛있게 담궈졌답니다. 수고해 주신 부녀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차량지원 및 배달에 수고하신 멋진 봉사원들 모두모두 정말 감사드려요! 할머니!할아버지! 김치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院 따~뜻~한 겨울 이불 및 생필품 지원

한국타이어복지재단에서 후원해주신 따~뜻~한 겨울이불을 홀로 어르신 50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겨울나기의 필수품 겨울이불을 선물 받으신 어르신들은 연신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푹신한 솜털처럼 어르신들의 마음도 보듬어 드리고 건강하게 겨울 나셨으면 좋겠네요*^^*

LG복지재단에서 후원해 주신 생필품을 15분의 어르신들께 지원해 드렸습니다. 치약, 비누, 샴푸, 세제 등등...모든게 어르신들께 필요한 물품들이어서 두 손에 받아드셔서 한참을 들여다 보시곤 하셨답니다.

院 2001년 가정봉사원 결산 및 간담회

12월 27일, 어린애처럼(?)투정부리시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피느라 애쓰신 봉사원들과 한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 용궁복어 ’식당에서 이루어진 행사에 40명의 봉사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답니다. 한해 동안의 사업을 돌아보는 순서와 가정봉사원 2분의 눈물의 활동수기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맛있는 복어요리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봉사원들의 노고에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조그마한 선물도 전해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마니마니 받으셔요...2002년에도 대덕의 가정봉사원 화이팅!!!

2001년도대덕재단결산공고

사업기간: 2001.1.1~ 12.31

■ 대성원

세입	<단위: 천원>
보조금수입	879,890
후원금수입	25,189
전 입 금	21,500
이 월 금	10,294
잡 수 입	428
총 계	937,301

세출	<단위: 천원>
사무비	746,048
인건비	681,703
업무추진비	849
운영비	63,496
재산조성비	12,239
사업비	169,551
운영비	157,927
교육비	11,624
이월금	9,463
잡지출	-
총 계	937,301

■ 대성어린이집

세입				<단위: 원>
입소자부담금	보조금	이월금	잡수입	합계
50,289,000	73,246,040	1,714,370	2,710,451	127,959,861

세출				<단위: 원>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잡지출	이월금	합계
112,663,920	3,583,770	10,711,000	50,000	451,171	127,959,861

■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세입		<단위 : 원>
관	항	금액
총계		42,933,513
사업수입	<소계>	21,440,000
	연구자문사업	1,500,000
	교육상담사업	6,940,000
	출판정보사업	13,000,000
보조금수입	후원회비수입	16,785,000
이월금	이월금	4,638,512
잡수입	잡수입	70,001

세출		<단위 : 원>
관	항	금액
총계		42,933,513
사무비	<소계>	28,742,140
	인건비	13,900,000
	업무추진비	4,200,000
	운영비	9,080,840
	판공비	1,561,300
재산조성비	시설비	655,800
사업비	<소계>	12,351,100
	교육상담사업비	5,460,000
	출판정보사업비	6,891,100
이월금	이월금	1,184,473

■ 대덕노인복지회관

세입		<단위 : 원>
관	항	금액
사회수입	사회수입	21,785,707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21,800,000
전입금	전입금	28,000,000
잡수입	잡수입	224,292
총계	총계	71,809,999

세출		<단위 : 원>
관	항	금액
사무비	인건비	19,180,860
	업무추진비	236,750
	운영비	10,879,620
재산조성비	시설비	7,675,820
사업비	사업비	32,895,320
잡지출	잡지출	-
예비비	예비비	-
이월금	이월금	959,629
총계	총계	71,809,999

■ 대덕가정봉사원파견센타

사업기간: 2001.10.1~ 12.31

세입		<단위 : 원>
관	항	금액
보조금	보조금	102,160,000
	후원수입금	1,000,000
	기부수입금	1,960,000
전입금	전입금	15,540,000
이월금	이월금	281,825
잡수입	잡수입	64,511
총계	총계	121,006,336

세출		<단위 : 원>
관	항	금액
사무비	인건비	71,333,565
	업무추진비	3,169,760
	운영비	3,676,290
재산조성비	시설비	3,080,000
사업비	사업비	39,525,720
이월금	이월금	221,001
총계	총계	121,006,336

따뜻한이웃이있어 참으로살만한세상입니다.

2001.11 ~ 2001.12

<단위 : 원>

대덕재단

•후원금

건우회	200,000
권소영	10,000
권순희	20,000
권영애	100,000
권용욱	20,000
(주)기산개발	9,810
김대관	40,000
김선이	60,000
김성훈	40,000
김지승	20,000
김철주	20,000
대봉성결교회	29,810
문해순	40,000
민영훈	9,810
박정원	60,000
박춘수	1,000,000
박효찬	10,000
배상식	100,000
배종환	5,000
서은정	10,000
손기수	20,000
손동규	10,000
신원돌	20,000
신윤주	10,000
유은정	10,000
이경애	40,000
이경연	20,000
이동수	20,000
이상옥	20,000
이시우	10,000
이혜숙	1,500,000
이홍희	10,000
익명1	1,000,000
익명2	1,831,120
익명3	339,930
익명4	53,080
임금랑	20,000
임장호	10,000
임종여	140,000
임지영	10,000
임창노	20,000
임창은	10,000
정다문	60,000
정명옥	10,000
정상규	49,810
정상희	9,810
정성모	20,000
정해권	40,000
최법헌	20,000
최성덕	2,000,000
최현정	5,000
최현정	5,000
통일로터리	1,000,000
홍정희	79,620

대성원

•후원금

금복주	500,000
김석홍	150,000
김지영	100,000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700,000
대구은행부인회	1,000,000
대구통신망운용국	200,000
박미자	1,000,000
박세원	200,000
서성태	20,000
서정도	5,000
양숙희	20,000
여상훈	150,000
영남이공대학자원봉사센터	200,000
오연옥	20,000
(주)우성화이바	50,000
유병구	20,000
윤인식	216,000
이경애	50,000
이미숙	24,160
이혜정	200,000
전종을	100,000
정용주	30,000
제이교회중등부일동	60,000
홍재용	20,000

•결연후원

한국복지재단	547,038

•민간단체후원

월드비젼	947,348

•물품후원

강소원후원자	과일
경상공고선생님	귤,물티슈
국제부인회	간식,아기용품
김상기	휴지
나조자	침대
남대구세무서	분유
다솜이	생활용품
대구백화점	빵
대구은행	분유,간식
대구통신망운영국	쌀
대구MBC	쌀
동아백화점	분유
로터스	신발
맥도날드	장난감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도움주신 온정어린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영준	햄버거
민세나후원자	귤
박미자(박소아과)	의류
박인숙	과일
북구고성3가	기저귀
비원교회	귤,과자
사철나무회	기저귀,분유,과자
성미	과자
성지교회	기저귀,과자
신당종합복지관	의류
아름다운피부관리실	기저귀,로션,과자
연통사	과자, 내의
유정숙	떡
이은정	과자,사탕
이장군후원자	과일,쌀,의류
일하는손	과자,샴푸,기저귀
제일성결교회	과자,로션
쪽방자원봉사센터	아기용품
최성환	사무용품
충곡장학회	보일러등류
푸드뱅크	부식,아기용품
(주)한국릴리	과자
한국통신	쌀
한마음	의류
해솔지기	간식,의류
황금복지관	기저귀
황금성당	장난감,의류,해열제

대덕노인복지회관

•후원금

김성주	15,000
김영숙	20,000
김종가	10,000
노인의집	400,000
대구고등학교	400,000
(주)삼성물산	300,000
시설관리공단	40,000
양을만	10,000
우정구	20,000
유명자	10,000
이영선	10,000
이후금	40,000
장순례	10,000
정경희	20,000
주광준	10,000
최황금	20,000
한국담배인삼공사	300,000
한국부인회	200,000

•각반별 독거노인성금

국악반	165,000
노래교실	186,000
단전호흡	90,000
스포츠댄스A반	87,000
스포츠댄스B반	57,000
에어로빅반	42,000
영어교실	30,000
일본어반	110,000
장고반	50,000
컴퓨터중급반	60,000
컴퓨터초급반	40,000

•1주년개관기념행사금품후원

김중권 방신영 배근희 서귀련 서상우
설정현 손명숙 신동학 이앵규 이현희
정송자 정영애 주광준 최영숙 최정숙
현승일 불교사회복지회

•1주년개관기념행사물품후원

공화춘 김승자 박정희 송춘향 우정구
유영아 이은화 황영자
경북여고30회(김승자 송향춘)
남구보건소(유영아소장)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박정희회장)
대구여성회관(이상욱관장)
영남의료원(설정현원장)
영어반(황영자회장)
장터슈퍼(대명9동)
컴퓨터반(우정구회장)
향뜰어린이집(정유심원장)
후원운영위원회(최영숙회장 외)
훼미리뷔페(구본건대표)

대덕가정봉사원파견센타

•후원금

대한노인회	400,000
(독거노인생계비지원>	

•물품후원

남구청	쌀,멸치액젓
라이온스클럽	의류,귤,라면
새마을운동중앙회남구지회	김치(100세대)
푸드뱅크	고추장,쌈장
한국타이어복지재단	이불

"대성원아기들돌사진을찍어주셨습니다"
어린이전용사진실
아이LOVE 아이
Tel.(053)422~3524 · 5

대성원

釥 단체 및 개인자원봉사자

112봉사대(대구지방경찰청)
경상공고학생
국제부인회(국내및외국인부인회모임)
다솜이
대구시종합복지회관
대구은행부인회
대구회사원모임
더디가도(영남이공대학간호학과)
따사모(경북대컴퓨터학과)
만촌성당
모자자원봉사팀(달서구자원봉사센터)
복지실천연구회(영진전문대학사회복지학과)
비원교회
성도교회
성지교회
연진전문대학RCY
청록회
투게더7075
해솔지기(개명대 및직장인)
FV2기, FV3기(홀트복지관)

고말순, 권순례, 김미영, 김미정, 김미혜, 김수빈
김영선, 김용희, 김점이, 김정숙, 김현희, 김혜영
민혜영, 박미순, 박인순, 박혜란, 배영혜, 소은실
송태자, 오영애, 유창순, 이명숙, 이수지, 이정숙
이지희, 장인옥, 전선희, 정순자, 최무숙, 최성희
한금옥

釥 이미용 자원봉사자

김경연, 박경이, 박인순, 이현주
정영화, 최정희, 홍동경

釥 의료서비스

명인소아과, 신소아과, 적십자병원

釥 소식지제작

배미희, 조윤미

釥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이나 궁금하신분들은 바로 연락 주십시요.

문의 : 053)473~3771 · 2
담당사회복지사 장경석

대덕노인복지회관

釥 수지침 자원봉사

권오봉,김인섭,김장호,김정자,변효영,우남윤
이종분,이준조,장옥주,진필자,한찬섭

釥 발맛사지

이강열, 이용학

釥 이미용자원봉사

김정희

釥 한방자원봉사자

상림한의원 원장

釥 단체 및 개인자원봉사자

남구새마을부녀회 박정숙 외 10명
박동수, 임수진, 최민영

釥가정봉사원파견센타자원봉사자

강금옥,강정옥,권기복,김경호,김군자,김금희
김덕휘,김도화,김동순,김미화,김선희,김순자
김옥자,김정미,김정생,김주숙,김현숙,김혜자
류윤옥,모다남,박금자,박월순,박일주,박점숙
박정애,박현정,소혜영,손옥자,송정숙,신근숙
신효선,안미경양미자,오용순,우두병,유명자
육영혜,윤등준,윤민아,윤희영,이경숙,이귀분
이두리,이명순,이명자,이소,이순자,이인술
이정순,이태경,임태희,장병학,장정희,전복순
정석신,정원잠,조경인,조광수,조남희,차명자
최민영,최숙자,최옥태,최재연,최정연,최정혜
최춘옥

釥 밑 반찬 지원 자원봉사자

관문교회팀, 노래교실팀, 소화성당팀
진각종팀

가정위탁

구연숙 - 유현지
김숙자 - 권도영
김은영 - 김명섭
김정민 - 서재훈
김현정 - 서재훈
남현주 - 김태수
도경려 - 이현빈
박미정 - 김현수
서상희 - 김철우
신재용 - 이남주
신팔호 - 박현민
오영애 - 정재희
임동한 - 임상희
조은주 - 김철수
함금옥 - 박준석

" 엄마를 기다립니다 "

조그만 발을
바둥거리며
목놓아 우는 것 밖에
모를때

뱃속에서처럼
엄마를 느끼기 위해
곤히 잠자는 것 밖에
모를 때

온 몸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엄마의 체온은
아직 식지 않았는데
지금 엄마는 없습니다

엄마는 너를 키울 수 없다
엄마는 너를 키울 수 없다
그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는 법을 배우고
않는 법을 배우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다는 걸
하나씩 하나씩 배우지만
아직 엄마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

엄마의 정을
나눠줄 사람이 그리워
아기는 까만 눈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가까이에서 엄마가 되어 달라고
오늘도 엄마를
기다립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여 부모가 되기로 결정하시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위해 사랑과 노력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분에게 입양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입양상담 : 053)473~3771 · 2
· 담당사회복지사 송금선
·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 대성원 "이 함께 합니다.

“ 사랑의 상자에 당신의 사랑을 담아 보세요. ”

홀로는 작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랑이 모이면 한 사랑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자라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현 재 참 여 업 체

음식점

갈비명가돼지갈비. 고래성. 금강회초밥.
금곡삼계탕. 금옥이네돌솥비빔밥. 달구마을닭갈비.
대궁식당. 동충하초삼계탕. 들안길식당.
삼성금융프라자(일식집). 선비고을. 성림복어참다랑.
소말뚝숯불갈비. 양산도민물장어. 언양숯불갈비.
오리만찬디오. 자인식육식당.
제주통돼지숯불갈비(복현동). 호박터숯불갈비(복현동).

금융기관

경대병원우체국. 대구역상가우체국. 대구우체국.
대봉우체국. 도원동우체국. 동산병원우체국.
봉덕우체국. 북대구농협. 비산동우체국.
삼성금융프라자우체국. 시청우체국.
신용산우체국. 장기동우체국

공공기관

감삼동사무소
내당4동사무소
두류3동사무소
복현1동사무소
송현동사무소

병원

남구보건소
대구적십자병원
연수당한의원(복현동)

기타

고장난시계(복현동)
채널투(복현동)
3층당구장(복현동)
포커스당구장(복현동)
효성코아(볼링장)
영진전문대학구내서점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나 사업장은 연락주세요 지금 달려 가겠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대성원 ’이 함께 합니다.

담당사회복지사 류종우
< 문의전화: 053)473~3771 · 2 FAX: 473~4773 >

세상에서가장행복한아이
우리가만들어줘야합니다.

다 솜 이

매주 일요일 아침 대성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장인 자원봉사단체 ' 다솜이 ' (순 우리말로 ' 사랑 '이란 뜻)는 우리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이들은... 21세기 빛과 소금이 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후원에 참여하시려면?

계좌이체와지로후원,
무통장입금이있습니다.
계좌이체는전화후재단사무국을
방문하시면되며,
지로후원을원하실경우연락주시면
지로를보내드립니다.

누구나대덕가족이될 수 있습니다!

후원과 자원봉사활동

후원은월오천원이상정기후원이거나
일회성후원도가능합니다.
물품후원일경우미리연락주시면
필요한물품을의논할수있습니다.
자원봉사는일반봉사와교육봉사,
전문봉사가있으며, 전화와방문을
통하여활동이가능합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010-04-000366-7
- 국민은행: 615-25-0007-124
- 우체국 : 702951-01-000250
- 농 협 : 704-17-001545

<예금주: (복) 대덕재단>

문 의

Tel.053) 473 3771~2
Fax.053) 473 3773

대덕복지 2002.01.15. 통권제8호/ 발행및편집인: 도병권/ 발행처: 사회복지법인대덕재단/ 기획및제작: 대덕재단후원사업부 · 대구광역시남구봉덕2동920 Tel.473~3771 · 2 Fax. 473-3773 http: //www.dd99.